

STEP 1

저자가 쪼개고 변형한 기술로 독해력 키우기

Q.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시오.

(가)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나,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나)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1.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글루 안의 온도가 밖보다 높은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② 태양 빛은 이글루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③ 극지방의 지면과 이글루는 같은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 ④ 이글루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장파이다.

2.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온실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이글루 내부의 온도는 일정할 것이다.
- ②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의 일부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다.
- ③ 온실 유리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 ④ 이글루에 구멍이 뚫리면 추워진다.
- ⑤ 지구의 대기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3. 지문과 <보기>를 참고할 때, 옳은 것은?

<보기>

복사란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총칭이고, 전자기파는 파장에 속한다. 단파는 파장이 짧은, 장파는 긴 파장을 뜻한다. 온도가 높은 천체일수록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복사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복사로 부른다.

- ① 태양보다 지구의 온도가 높다.
- ② 태양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파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길다.
- ③ 대기는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다.
- ④ 이글루가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온실 유리를 거치며 장파로 변환된다.
- ⑤ 이글루를 만들 때 장파인 복사파를 최대한 차단시켜야 따뜻한 이글루를 만들 수 있다.

4. 빈칸을 채우시오.

- (1) 이글루 ()은 ()보다 온도가 높다.
- (2)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파이다.

| |
|------------------|
| Step 1, #9 <9일차> |
| 2020년 월 일 |

Q.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1. 빈칸을 채우시오.

- (1) 암세포에 ()적으로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는 ()와 ()로 나뉜다.
- (2) 종양이 자라려면 ()와 ()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 (3) ()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2.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항암제는 암세포를 없앤다.
- ② 표적항암제의 종류는 다양하다.
- ③ 종양에는 혈관이 있다.
- ④ 암세포는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
- ⑤ 새로운 혈관은 암세포의 일종이다.

3.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4 개)

- ① 항암제 중에는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것도 있다.
- ②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만 신호 전달 억제제가 작용될 수 있다.
- ③ 산소와 영양분은 혈관으로 운반된다.
- ④ 암세포가 증식하면 종양이 되는데, 그 종양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지 못한다.
- ⑤ 신호 전달 억제제가 작용되지 않는 암세포의 증식 속도는 신생 혈관 억제제가 성공적으로 작용된 종양 내부 암세포의 증식 속도보다 빠르다.
- ⑥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의 특정 단계 진행을 방해하는 물질 A를 종양의 혈관에 투입하면 VEGF의 분비가 늘어난다.
- ⑦ 종양의 성장에 필요한 산소는 신호 전달 억제제가, 영양분은 신생 혈관 억제제가 차단한다.
- ⑧ 종양의 크기는 암세포의 증식속도에 반비례한다.
- ⑨ 종양이 성장하려면 인접한 암세포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종양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팁>

왜 이렇게 생명과학 관련 문제가 많냐고? 작년 수능에 나와서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올 소재 같다고? 맞아. 내 생각에도 21수능엔 생명 소재 안 나올 거 같아. 근데 과학기술지문에 입문하기에 생명만큼 좋은 소재가 없어. 과학소재, 즉 처음 듣는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는 지문에 익숙해지라고 많이 넣어둔거.

또, 문이과 통합이 되는데, 생명은 문과든 이과든 대부분 배우거든. 아무튼 그래서 21년도 모의고사에 생명관련 지문이 많이 나올거야. 수능 말고 모의고사도 대비해야지. 모의고사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될 거고.

그리고 지문들 좀 읽다 보면 생명이든 지구야 놀자든 물리든.. 문제화 되는 포인트들이 뭔가 비슷하다는게 느껴질거야. 또, 큰 틀이 [개념의 정의]-[활용법]-[예시]로 똑 같은 것도.

STEP 2

저자가 선정한 독해력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PSAT+평가원 기출 조합

2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과세대상) 주권(株券)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00조(납세의무자) 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조(과세표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주권의 양도가액(주당 양도가액에 양도 주권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00조(세율) 주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00조(탄력세율) X 또는 Y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제00조(세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에 의한다.
1. X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1.5
2. Y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천분의 3

<상황>

투자자 甲은 금융투자업자 乙을 통해 다음 3건의 주권을 양도하였다.
○ A회사의 주권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주당 30,000원에 X증권시장에서 전량 양도하였다.
○ B회사의 주권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Y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 C회사의 주권 200주를 X 및 Y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다.

- ① 증권거래세는 甲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되어야 할 증권거래세액의 총합은 6만 원이다.
- ③ 甲의 3건의 주권 양도는 모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 ④ 甲의 A회사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다.
- ⑤ 甲이 乙을 통해 Y증권시장에서 C회사의 주권 200주 전량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면 증권거래세액은 2만 원 감소한다.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이상적인 점포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권분석이론에는 'X가설'과 'Y가설'이 있다. X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중 한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동거리가 점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지만, 소비자가 항상 가장 가까운 점포를 찾는다 X가설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가령, 소비자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점포가 보다 나은 구매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추가 노력을 보상한다면 기꺼이 먼 곳까지 찾아간다.

한편 Y가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에 대한 각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각 도시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즉,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더 많은 구매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일직선 상에 A, B, C 세 도시가 있고, C시는 A시와 B시 사이에 위치하며, C시는 A시로부터 5 km, B시로부터 10 km 떨어져 있다. 그리고 A시 인구는 50만 명, B시의 인구는 400만 명, C시의 인구는 9만 명이다. 만약 A시와 B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C시의 모든 인구가 A시와 B시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Y가설에 따라 A시와 B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C시의 인구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A시의 흡인력은 20,000(= 50만 ÷ 25), B시의 흡인력은 40,000(= 400만 ÷ 100)이다. 따라서 9만 명인 C시의 인구 중 1/3인 3만 명은 A시로, 2/3인 6만 명은 B시로 흡인된다.

<보기>

- ㄱ. X가설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중 한 점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더 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먼 거리에 있는 점포에 간다.
- ㄴ. Y가설에 따르면, 인구 및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거리가 가까운 도시일수록 이상적인 점포 입지가 된다.
- ㄷ. Y가설에 따르면, C시로부터 A시와 B시가 떨어진 거리가 5 km로 같다고 가정할 때 C시의 인구 중 8만 명이 B시로 흡인된다.

Q.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8.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A B C D
-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29. 뒷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

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3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이 든다.
- ② 그는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들고 있다.
- ③ 그분은 이미 대가의 경지에 든 학자이다.
- ④ 하반기에 들자 수출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 ⑤ 젊은 부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들기로 했다.

STEP 3

점점 비문학화 되어가는 문법. 아마 이 트렌드가 바뀌진 않을 것 같음.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법문제를 모아봤음.

Q.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언어를 문화의 색인(索引)이라고까지 말한다. 한 민족은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사상, 감정 및 사고 방식도 아울러 지닌다. 이들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어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량의 한자어들이 들어와 한자어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자는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이 땅에 전래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신라 22대 지증왕 때와 35대 경덕왕 때에 각각 ㉡인명과 지명 등을 한자어로 바꾸었다. 이러한 한자어는 그 후 고려 시대에 불교, 조선 시대에 유학이 융성함에 따라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 되어 우리말에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서는 'yellow' 하나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어의 감각어가 얼마나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상징어는 주로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의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고,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나)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휘와 관련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력을 높이려면 우선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합성법을 사용하거나, '-보, -쟁이' 등 파생 접사를

이용한 파생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 위해 외래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문을 사용해 온 까닭으로 우리말에는 다량의 한자어가 들어와 있다. ㉥우리 민족은 한자어를 받아들여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었으며, 한자어 명사나 부사에 '-하다'를 붙여 우리말 조어 규칙에 맞는 동사로 만들어 받아들였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하다', '다이나믹하다'처럼 영어의 형용사에 '-하다'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또 우리말에 발달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새로 만드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사전에는 '사르르'만 실려 있는데, 실제 발화에서는 '사르르르', '사르르르르'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소설류에는 '나홀나홀', '필릴리' 등 기존 사전에 없는 상징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일부는 개인이 만든 것일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어휘들은 이후에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 사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촌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하늬바람'이 시어 등에 자주 사용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가람, 뉘' 등 옛말 어휘가 오늘날 인명, 상표명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우리말에 존재하던 어휘들이 새롭게 쓰이면서 정서적인 의미를 추가로 가지게 되어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1.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가)를 (나)에서 사례를 들어 보완하고 있다.
- ② (가)를 (나)에서 긍정하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에 대해 (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를 근거로 (나)에서 미래에 전개될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 ⑤ (가)와 관련하여 (나)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가), (나)로부터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은?

- ① 외래어도 해당 언어를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

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④ 소리나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상징어는 감각적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준다.
- ⑤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변하면 어휘의 특질이 변할 수 있다.

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김치, 된장, 온돌' 등 우리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
- ② ㉡ : 고유어 지명 '매홀'을 한자어 지명 '수성(水城)'으로 바꿈
- ③ ㉢ : '깜깜하다 - 깜깜하다'처럼 자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이 다른 어휘로 분화됨
- ④ ㉣ : '먹다 → 먹이다', '남다 → 남기다'처럼 '-이-'나 '-기-'를 붙여 사동사를 만들
- ⑤ ㉤ : 중국 한자음으로 첫소리가 [ㄹ(1)]인 '日', '人'을 우리식 한자음 '[내일]', '[노인]'으로 읽음

4. ㉤와 관련하여, <보기>의 원리에 따라 우리말 색채어의 다양 성을 학습해 보고자 한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보 기> —

<색채어 분화 원리>

1. '노랗다'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밝은 색깔을 표현하고, '누렇다'와 같이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어두운 색깔을 표현한다.
2. '셋'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씻'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
3. '-스름하다', '-스레하다'가 결합하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예문>

개울가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오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린 채 줄지어 서 있었다. 해가 지자 달맞이꽃들은 차츰 희미해져서 노르스름한 점들로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산등성이에서 달이 뜨기 시작했다. 노르스레하던 달맞이꽃은 달이 떠오르자 점점 선명해져 여기저기 작고 () 얼굴을 내밀었다.

- ① 누런 ② 씻누런 ③ 셋노란
- ④ 누르스레한 ⑤ 노릇노릇한